"예쁜 첫사랑 응원했는데…새드엔딩 슬펐다"

최근 종영 '스물다섯 스물하나' 나희도 역 김태리
"제게 연기는 희도의 펜싱과 같아…매일 2시간씩 펜싱 연습
이렇게 자유분방한 캐릭터는 처음…연기하며 새로운 경험"

배우 김태리가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꿈을 좇고, 어리숙하지만 처음 느껴보는 사랑이란 감정에 온 마음을 내던지는 청춘의 모습으로 또 한 번 '인생 캐릭터'를 만들어냈다.

김태리는 최근 종영한 tvN 주말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와 관련한 화상 인터뷰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희도와 슈퍼 앞 나무 아래 평상이 주는 여름날의 분위기, 내레이션, 그 모든 것이 너무 좋았다"며 작품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스물다섯 스물하나'는 1990년대를 배경으로 청춘들의 방황과 성장을 그린 로맨스다. 김태리는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나희도 역을 맡아 스포츠 기자로 분한 남주혁과 풋풋한 로맨스로 설렘을 전했다.

김태리는 희도를 스펀지 같은 캐릭터라고 했다. 배우는 대로, 느끼는 대로 모든 것을 흡수하듯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펜싱 실력은 물론 우정과 사랑에 대한 감정을 배우며 어른으로 쑥쑥 성장해가는 청춘이라는 것이다.

김태리는 "희도처럼 자유분방한 캐릭터는 처음이어서, 연기하며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며 "나를 절제할 필요 없이 미친 사람처럼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연기를) 했는데, 그게 정말 재밌었다"고 말했다.

희도로 분한 김태리는 좋아하는 마음이 들면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아"라고 거침없이 고백하고, 화가 나면 "너무 화가 나", "나는 이해가 안 돼"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직진' 화법으로 사랑스러움을 뽐어냈다.

교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에는 "귀엽죠~"라며 크게 웃는 김태리에게서 희도의 천진난만하고 해맑은 분위기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희도와 닮은 점이 꽤 있는 것 같다는 김태리는 "첫 리딩 현장에서 대본을 읽는데, 크게 준비해가지 않았는데도 입 밖으로 나오는 대사들이 희도가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또 시청자들을 설레게 한 남주혁과 풋풋한 로맨스에 대해서는 눈을 반짝이며 "너무 사랑스럽잖아요"라고 말했다. 두 사람이 결론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엔딩에 대해서는 "저도 슬퍼요"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희도와 이진이 너무 예뻤어요. 이런 첫사랑을 누가 가지고 있나 싶을 정도로 아름답게 그려졌잖아요. 서로를 응원하는 그 특별한 관계를 보면서 두 사람을 응원하고 싶었어요. 결혼까지 이어지면 좋았을 텐데, 제가 다 죄송하네요. (웃음)"

드라마는 로맨스 외에도 웃고 떠들면서도 때때로 좌절하는 청춘들의 이야기로 큰 공감을 샀다.

아이같이 철없어 보이다가도 펜싱 검을 쥐는 순간 진심이 뚝뚝 묻어나는 눈빛으로 돌변하는 희도는 꿈꾸던 청춘 시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매일 2시간씩 펜싱 연습을 했다는 김태리는 어느 날 노트에 '움직임에 필요한 근육이 느껴진다'라고 쓰며 성취감을 느꼈다고도 전했다.

김태리는 "마음이 설렌다면 청춘인 것 같다"며 "무언가 하고 싶은게 있거나, 누구를 만나기 전에 설렌다면 그 모든 순간이 청춘이지, 딱 20대만을 청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희도한테 빼놓을 수 없는 게 펜싱이라면, 저한테는 연기가 그런 것 같다"며 "희도가 '나는 아직도, 여전히, 펜싱이 재밌다'고 말했던 것처럼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그 순간들이 저의 빛나는 청춘 같다"고 전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2018) 이후 4년 만에 브라운관에 얼굴을 보인 김태리는 매번 새로운 캐릭터를 선보이는데, 고르는 작품마다 '대박'을 터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2016)로 이목을 집중 받은 이후 영화 '1987'(2017), '리틀 포레스트'(2018), '승리호'(2020)도 모두 호평을 받았다.

김태리는 "저 (나름의) 자부심이 있는데, 대본을 잘 본다"며 "작품을 잘 고른다는 뜻이 아니라 읽었을 때 직관적으로 눈에 잘 들어오는 대본이 있는데 '스물다섯 스물하나'는 박장대소를 하며 읽었고, 이 정도로 큰 사랑을 받게 돼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김태리

'버터' 세계적 히트에도…BTS, 그래미 수상 또 불발

"2년 연속 후보 선정 큰 의미"
"아시아 가수 등 배타적" 비판도
'키스 미 모어' 도자캣·SZA 수상

그룹 방탄소년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국 최고의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그래미 어워즈' 수상에 아쉽게 실패했다.

방탄소년단은 4일(한국시간) 오전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제64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자로 호명되지 못했다.

이 부문 수상자로는 지난해 '키스 미 모어'(Kiss Me More)로 큰 사랑을 받은 도자 캣과 SZA가 선정됐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5월 발표한 '버터'(Butter)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10주 1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음악시장을 강타해 어느 때보다 수상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기에 아쉬움이 더욱 컸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3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 마련된 제64회 그래미 시상식장에 도착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빌보드 뮤직 어워즈'를 2017년 이래 5년 연속,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를 2018년 이래 4년 연속으로 수상한 바 있어 '그라모폰'(그래미 트로피)만 손에 넣으면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을 모두 석권할 터였다.

특히 '버터'의 흥행 성공으로 지난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 격인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Artist Of The Year)까지 아시아 가수 처음으로 차지하면서 그래미 수상에 대한 기대가 많았다.

멤버 슈가는 지난해 1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그래미 수상이) 당연히 쉽지는 않겠지만 뛰어넘을 장벽이 있고,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고 그래미에 대한 의욕을 보였다.

진 역시 "아직 우리가 받지 못한 상이 그래미"라며 "아직도 못 받은 상이 있으니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고 한 바 있다.

방탄소년단의 수상 불발을 두고 상업적 성과나 인기보다는 음악성 자체를 따지는 그래미의 성격이 반영됐다거나, 댄스 음악·보이그룹과 아시아 가수에게 유독 박한 특유의 보수성이 작용했다는 지적 등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한편으로는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내놓은 결과물이 풀 앨범(Full Album)이 아닌 싱글(Single) '버터' 하나뿐이어서 음악적 성취를 어필하기에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결과와 무관하게 그래미가 2년 연속으로 K팝 노래를 후보에 올린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는 점에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이론이 없다.

/연합뉴스

'범죄도시 2' 오는 5월 개봉
한국영화 흥행 재시동 주목

배우 마동석이 기획하고 주연한 영화 '범죄도시 2'가 5월 개봉을 확정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개봉을 미루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 영화가 다시 흥행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배급사 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는 4일 '범죄도시 2' 5월 개봉 사실과 함께 티저 포스터를 공개했다.

2017년 가을 개봉한 '범죄도시'는 관객 688만 명을 동원해 국내에서 개봉한 역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영화 흥행 3위에 올라 있다.

15세 이상으로 등급을 낮춘 '범죄도시 2'는 전편의 가리봉 소탕작전 4년 뒤 이야기로, 베트남으로 도주한 용의자를 인도받으러 간 금천서 강력반과 괴물형사 마석도(마동석 분)가 짜릿한 범죄소탕 작전을 이어간다.

전편에서 윤계상이 선보였던 무자비한 악당 장첸을 잇는 새로운 빌런 강해상 역으로 손석구가 합류했다.

'범죄도시 2'는 2020년 4월 베트남에서 촬영을 진행하다 코로나19 여파로 갑작스럽게 철수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전편의 조연출이었던 이상용 감독이 연출했다.

/연합뉴스